

탑의 진화

⑤ 인도 산치의 불탑(1)-산치대탑(제1탑)

아쇼카왕의 8만4천 불탑의 조성을 계기로 고대 인도의 불교문화는 불탑 신앙으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도 각지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불탑이 그 위용을 자랑하였으며, 불자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없어져 역사 속으로 살아 지고 말았다. 그러나 산치에는 예전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거대한 불탑이 남아있어 천만다행이라는 표현에도 부족함이 없다.

인도 중부 마드야 프라데시주의 수도 보팔 근처 북부 46km 지점에 자리한 산치에는 현재 3기의 불탑이 남아 있으며, 스님들이 수행하던 승원과 사당의 터는 수십 개가 남아있는 불교 종합센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산치의 유적은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되어 12세기 까지 약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 불교인들의 수행 생활의 공간이었다.

1) 산치 제1탑(사진1)

산치에 있는 불탑 3기 중 발굴 순서에 따라 편의상 번호를 붙여 제1탑이라고 호칭하는 불탑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산치대탑이라고도 한다.

산치 대탑은 아쇼카왕이 사랑하던 여인을 그리워 하며 조성했다는 전설이 있다.

아쇼카왕은 왕자 시절 비디샤(Vidisha) 지방에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섰다. 이곳에서 '데비(Devi)'라는 여인을 사랑하여 둘 사이에서는 남매가 태어났다. 그러나 아쇼카 왕자는 또 다른 전쟁으로 떠나야 했으며, 왕위에 오른 후에도 젊은 시절 한 때 사랑했던 여인 데비를 마음속에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쇼카가 데비에게 선물로 주었던 사랑의 징표를 들고 한 청년이 찾아왔다. 바로 아쇼카왕과 데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옛 사랑의 추억을 떠올린 아쇼카왕은 비데샤로 달려갔지만 이미 데비는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사랑했던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무관심에 대한 참회의 방법으로 그 곳에 불탑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이 탑이 바로 산치대탑인 것이다.

또한 징표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은 출가하여 스리랑카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마헨드라(Mahendra)' 스님이며, 여동생인 '상가미타(Sanghamitta)' 역시 오빠를 따라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으며, 부처님이 성도하신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를 스리랑카 보리사에 분양해 심은 주인공이 된다.

현재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산치의 제1탑은 높이가 16.5m이며, 직경이 37m에 달하는 거대한 불탑이다. 주변에서 생산되는 적사암의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 사용하여 마치 우리나라 경주에 있는 분황사의 탑처럼 일종의 모전석탑 양식을 하고 있다.

발굴조사에 의하면, 아쇼카왕이 처음 조성한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을, 승가왕조 시대에 돌로 덮어 확장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원래 이 불탑은 인도에서 불교의 쇠망과 함께 폐허가 된 것을 1818년 영국의 기병대 테일러(Taylor)장군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세상에 알려져 비전문가들에 의해 마구잡이식으로 발굴되어 수많은 산치의 유물들이 손상을 입게 되었다.

1882년에는 존슨(Johnson)에 의하여 제1탑이 완전히 해체되어 크게 훼손 되었고, 1851년에는 커밍햄

(Alexander Cunningham)이 마이세이(F.C. Maizey)와 함께 제2탑과 제3탑을 발굴해 그 안에서 사리장치를 찾아냈다. 1881년이 되어서야 코레(Najor Cole)에 의하여 불탑보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는 초목을 제거하고 붕괴된 대탑을 보수하였지만, 대부분의 조형물들은 방치해 두었다. 이처럼 영국인들에 의해 발굴조사라는 명목으로 심하게 훼손 된 것을 1912년부터 1919년 까지 영국의 고고학자 존 마셜(John Marshall)경에 의해 현재의 형태로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며,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 박물관도 그 때 조성되었다.

산치탑의 외형적 구조는 불교의 우주관,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지대(地大)·수대(水大)·화대(火大)·풍대(風大)·공대(空大)의 5대(五대)를 구체화 시켰다. 지대는 굳고 단단한 것으로 만물을 실을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수대는 만물을 포용하는 바탕이 되고, 화대는 따뜻한 것으로 만물을 성숙케 하며, 풍대는 활동력을 가져 만물을 성장케 하는 바탕이 된다. 이러한 오대 중 지대는 사각형으로, 수대는 원형으로, 화대는 삼각형으로, 풍대는 반월형으로, 공대는 보주형(寶珠形)으로 표현되는데, 산치탑의 경우 원형기단의 메디(medhi), 반구형 돌인 안다(anda), 안다 위의 발코니인 하르미카(harmika), 안다 가운데 기둥인 야스티(yasti)와 야스티에 여러 겹으로 된 차트라(chatravali)가 있다. 차트라 위에는 칼라사(kalasa)가 있다. <사진2>

‘불교종합센터’로 불리는 산치 불탑·승원터·사당터 수십개 현존 아쇼카왕 전설 깃든 제1탑 높이 16.5m, 직경 39m의 대탑 경주 분황사탑과 비슷한 ‘모전탑’

이처럼 처음 조성할 때는 원형 기단의 모습이었으나, 후에 ‘납순(欄楯:vedika)’이라고 하여 탑신을 둘러싸고 신성한 곳을 상징하고 보호하는 의미의 울타리가 조성되었다. 이 납순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4개의 토로나(torana)라는 탑문이 세워졌다. 이 중에 남문(사진3)이 가장 오래되었는데, 여기에 안드라왕조의 초기에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불탑이 마우리아왕조부터 승가왕조, 그리고 안드라왕조시대에 걸쳐 점차 확장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 남문은 산치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최근에 복원되었으며, 붓다의 탄생 이야기와 불자로서의 아쇼카왕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새겨져 있다.

북문(사진4)은 네 개의 문 가운데 가장 잘 보존되어 있지만, 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 법륜(法輪)이 깨져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 북문에는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조각되어 있는데, 원승이가 꿀 사발을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부처님의 모습은 보리수로 표현되어 있다. <사진5>

부처님께서 하루는 나지가 마을 군사령에 계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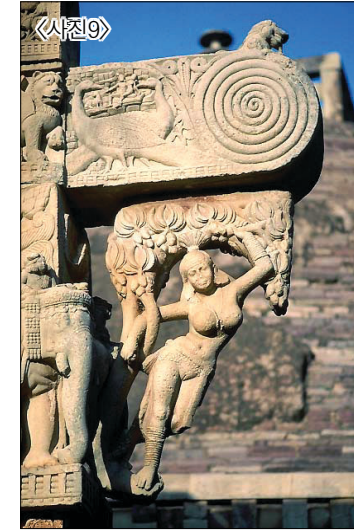
산치 제1탑. 높이가 16.5m이며, 직경이 37m에 달하는 거대한 산치 제1탑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산치대탑이라고 한다. 산치 대탑은 아쇼카왕이 사랑하던 여인을 그리워하며 조성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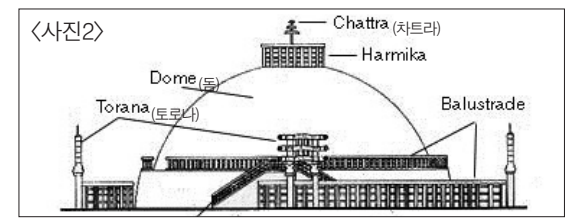
산치대탑 남문. 안드라왕조 초기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마야왕비의 태몽(동문)



동문에 조각된 약시상



산치대탑의 외형적 구조는 불교의 우주관,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산치대탑 북문.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이야기가 조각되어 있다.



원승이가 꿀 공양 조각(북문)



산치대탑 서문.



보리수로 표현된 부처님(서문)

이때에 부처님과 여러 제자들의 발우를 길거리에 놓아 두셨는데, 원승이 한 마리가 사라나무에서 내려와 발우를 가져가려고 하자 여러 비구스님들이 원승이를 때려 내쫓았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원승이를 때리지 말라! 원승이는 발우를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마음대로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원승이는 부처님의 발우를 들고 사라나무 위로 올라가 그 발우에 꿀을 가득 담아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그러나 그 꿀 속에는 벌이 한 마리 들어있자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자 원승이는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벌을 골라내고 다시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이번에도 받지 않으셨다. 원승이는 부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강가에 가서 꿀을 깨끗이 씻어 다시 공양 올리니 그제서야 부처님께서 받으셨다. 원승이는 부처님께서 꿀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합장하고 예를 올리고는 앞뒤를 살피지 않고 강중강중 뛰다가 우물속에 빠져 목숨을 잃고 말았다. 원승이는 죽자마자 나지가 마을의 청정한 바라문 부인의 태안에 임태되었다. 그가 바라문으로 임태되자 부처님께 꿀을 공양

한 인연으로 나지가 마을 안에는 하늘에서 꿀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현우경>

이처럼 원승이가 부처님께 꿀을 공양한 이야기는 <현우경>뿐만 아니라 <불오백제자자설본기경>, <유부약사>, <유부파승사> 등 많은 경전에 소개되어 있으며, 산치대탑의 북문 외에도 많은 불교조각의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다.

서문(사진6)은 배가 튀어나온 난쟁이들에 의해 지팡이를 받고 있으며, 한쪽 기둥의 뒷면에는 부처님이 세 눈을 지닌 죽음을 광장하는 신인 마라(Mara)의 유희를 물리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악마들은 도망을 치고 있는 반면에 천사들은 부처님의 저항을 보고 성원하고 있다. 이 서문의 횡랑 상단 정면에는 부처님의 7가지 화신(化身)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무불상 시대이므로 부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으므로 세 번은 불탑의 모습으로 네 번은 보리수 나무의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사진7>

동문의 기둥에는 부처님의 옆면에 드는 모습을 담고 있고, 또한 부처님께서 강을 위를 걸어서 건너는

기적 등을 묘사하고 있다. 이 동문의 중단 횡랑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위해 출가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부처님은 말을 타지 않고 단지 한 마리의 말로써 상징되고 있다.

한쪽 기둥에는 마야왕비가 부처님을 잉태했을 때 꾸었다는 태몽의 장면이 새겨져 있으며(사진8), 횡랑 하단에는 아름다운 약시(yakshi)상이 장식되어 있다(사진9). 나무의 신, 산의 신, 토지의 신, 또는 가정의 수호신으로까지 불리는 약시 여성상은 산치 대탑에서는 지모신(地母神)으로서 토지의 수호신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이 약시상이 점차 변해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아차(夜叉)라고 불리는 악귀로 변했으며, 스리랑카에서는 사람을 흘리는 해로운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4개의 탑문을 지나 층계를 오르면 탑돌이를 할 수 있도록 탑신에 통로를 만들어 놓았다. 이처럼 불탑을 신앙함에 있어서 탑돌이가 왜 중요하게 강조 되었는지는 다음 호에 알아보도록 한다.



글·우인보

Advertisement for 'Bamboo Forest Method Lamps' (竹林法燈). It features four different lamp models with their dimensions and prices. The text describes the lamps as being made from bamboo and wood, and are used for Buddhist rituals.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Bulje Daewon Co., Ltd.

Advertisement for 'Sachal Yendeung' (사찰연등) and 'Jeonseon' (전선). It features various LED lamps and lighting fixtures, including a large outdoor lamp and a smaller indoor lamp. The text describes the products as being made from high-quality materials and are suitable for use in temples and homes.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Bulje Daewon Co., Ltd.